

# 濟州島俗談의 主題

高 在 奐\*

目 次		
I. 머리말	2. 生計觀	(7) 告知
II. 주제	(1) 實利	3. 運命觀
1. 警世觀	(2) 勤實	(1) 運數
(1) 敎示	(3) 儉約	(2) 吉凶
(2) 言行	(4) 苦衷	(3) 因緣
(3) 人情	(5) 自立	(4) 來世
(4) 守分	(6) 強韌	III. 맺음말

## I. 머 리 말

俗談의 내용이나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그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韓國民俗學에서 내용과 주제 분류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주제 분류에 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던지 간에 시행되어야 할 필연성을 갖고 있다.

金思樺도 분류의 방법을 이론면과 내용면으로 구분하고, 이론면에서의 역사적 구분에 의한 분류는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고, 오직 내용면에서의

\* 濟州教育大學 教授, 文學博士

지역적 구분에 의한 예시만 해놓고 있다.<sup>1)</sup> 李乙煥인 경우는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에서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여성 속담을 4가지로 분류하기도 했지만,<sup>2)</sup> 徐石演은 “俗談學研究”에서 속담연구의 난점의 하나가 분류에 있음을 지적하고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복잡다양하여 타당하고 유용한 분류의 기준 이라고는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sup>3)</sup> 그 후 李基文은 그가 펴낸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의 자료를 중심으로 言語·人生·家庭·社會·知能·事理·心性·行爲·其他 등 9개 분야로 大別하고 각 분야별로 다시 103개의 소주제항목을 설정하여 세분한 바도 있다.<sup>4)</sup> 그러면서 ‘머리말’에 주제분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분류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속담을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 분류했을 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띤 典型的인 분류법은 없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분류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분류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이에 필자는 소주제를 수용시킬 수 있는 類概念인 대주제를 먼저 설정한 후 그 대주제별로 종속시킬 수 있는 種概念인 소주제를 설정함으로써 李基文의 분류방식과 同軌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簡明性を 위해 확산분해보다도 集約을 전제로 했는데, 警世觀·生計觀·運命觀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소주제를 15개 항목으로 한정시켜 분류했다.

1)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pp. 26~27.

2)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4, pp. 117~119.

A. 생활에지에 관련된 것. B. 처세생활에 대한 경계교훈에 관련된 것.  
C. 선배여성에 대한 지식전달, 사실보도. D. 여성에 대한 비난·힘담·조소에 관련된 것.

3) 徐石演, “俗談學研究”, 《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叢》, 同刊行會, 1974, pp. 461~462.

4) 李基文, 《韓國의 俗談》, 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 Ⅱ. 주 제

### 1. 警世觀

경세란 세상사를 일깨우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관점을 총괄하여 경세관이라 명명했다. 여기에는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性情과 언행을 교시하고 올바른 처세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진솔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아무리 각박한 삶일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잃거나 분수를 못 지켰을 때는 견잡을 수 없는 비리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며, 그 결과 야기될 파국을 경계하는 데 선인들도 최선을 기울였다. 俗談은 바로 이와 같은 선인들의 개인생활이나 공중생활에 있어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다져 주는 불문율로 회자돼 왔다. 즉 인간생활의 기틀을 다지려는 생활강령과도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들 관점에 대한 집약들이 바로 本島俗談이 보여 주고 있는 경세관에 대한 핵심 소주제인데, 敎示·言行·人情·守分 등이 그것이다. 분량면으로도 생계관의 것 213편과 운명관의 것 35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297편에 이르고 있다.

#### (1) 敎示(141편)

경세가 세상사를 일깨우는 것인 만큼 교시는 경세의 한 종개념으로서 인간을 가르쳐 보이는 교훈적 의미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음에 언급할 言行이나 人情·守分도 분명 인간생활을 일깨워 주기 위한 생활훈이라는 데서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일깨운다는 공리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해당 용어의 어의가 갖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교시는 행동·인정·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생활훈으로서의 敎條的 구실을 하고 있다.

#### <例示>

- 마음이 곧아사 옷 앞섭이 아문다.  
(마음이 곧아야 옷 앞섭이 아문다.)

- 딸은 어멍 피 물엉 난다.  
(딸은 어머니 피를 물고 난다.)
- 늘그니 몽둥인 구들 구석에 세와뵙 간다.  
(늙은이 지팡이는 방 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 큰 일 처난 집 저녁ᄃ심 싯곡, 큰 곳해난 집 저녁ᄃ심 옷나.  
(큰일 처던 집 저녁거리 있고, 큰 곳해던 집 저녁거리 없다.)
- 혼 자리가 췌안ᄃ민 백 자리가 췌안ᄃ다.  
(한 자리가 편안하면 백 자리가 편안하다.)

(2) 言行(97편)

언행에 관한 속담들은 말과 행동거지에 있어서 예의와 도리에 어긋나거나 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말보다도 행동에 대한 규제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善行에 대한 찬양은 없고 비행과 非禮의 부당한 몸가짐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성격의 띠고 있다. 실제 양적인 면에서도 말에 대한 것이 22편인데 비해 행동에 대한 것은 75편에 이르고 있다. 이들로 미루어 보아서 인간생활에서의 몸가짐, 곧 사리에 바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었나를 알 수 있다.

〈例示〉

—말(言)에 관한 속담—

- 나 흘 말 사돈침 강생이가 먼저 출다.  
(내 할 말 사돈침 강아지가 먼저 한다.)
- 본 말 본 디 버리곡, 들은 말 들은 디 버리라.  
(본 말 본 데 버리고, 들은 말 들은 데 버리라.)
- 좁은 입으로 ᄃ른 말 넓은 치메깍으로 못 막나.  
(좁은 입으로 한 말 넓은 치마자락으로 못 막는다.)
- 서울놈 글꼭지사 몰르므로 말꼭지사 몰르랴.  
(서울놈 글귀야 모르므로 말귀야 모르랴.)
- 밤 새낭 ᄃ단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년 출다.  
(밤 새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마누라 죽었느냐고 한다.)

— 행동에 관한 속담 —

- 하루긋 보젠 코 까근다.  
(하루긋 보려고 코 깎는다.)
- 글 배우넨 호난 개 잡는 걸 뵈나.  
(글 배우라고 했더니 개 잡는 것을 배운다.)
- 꼭 걸으레 간 놈이 정당벌립 망 돌른다.  
(취 걸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 테 엮는다.)
- 새침때긴 비곡 꼴곡, 허위대긴 그렁 죽나.<sup>5)</sup>  
(새침때기는 배고 깔고, 허위대는 그러서 죽는다.)
- 날근 놈이 절문 침 호민 불 본 나비 습뜨듯 혼다.  
(늙은 놈이 젊은 침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 한다.)

(3) 人情(45편)

물질적으로는 가난을 면치 못했으나 인정만은 풍요로왔다. 이웃끼리는 물론 인근 부락들과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야말로 각박한 생활의辛苦를 이겨내는 자양이 되었다. 그렇다고 생활의 전부가 애정을 갖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만은 없었다. 가정생활을 보더라도 姑婦와 妻妾, 繼父母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질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本島俗談에서는 동서지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여자인 경우 시앗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그 이유는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자기보호의 심리적인 면도 있으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시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의 有無와 衡平이 생계 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활상들이 부지불식간에 의식구조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반영하는 속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생계관에서 다룰 實利의 속담에도 인정에 관한 것이 많이 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인정을 주제로 한 속담의 편수는 훨씬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인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세관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47편에 그치고 있다. 이들 47편을 분류하면 愛情·隣保·反目 등으로 집약시킬 수가 있다.

5) 새침때기는 몰래 남정네를 많이 상대하고 있지만, 허위대는 그 외형뿐이지 실속없이 이성을 그리워하게 됨을 뜻한다.

〈例示〉

—愛情에 관한 속담—

- 가냐귀도 어멍아 혼다.  
(가마귀도 엄마야 한다.)
- 태 손 땅 못 버린다.  
(태 사른 땅 못 버린다.)
- 씨집강 석 돌 장개강 석 돌 달므민 못 살 사름 웃나.  
(시집가서 석 달 장가가서 석 달 닳으면 못 살 사람 없다.)
- 구시월 수가지 먹젠 해도 어멍 생각호민 목 단정 못 먹나.  
(구시월 가지 먹으려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목 막혀 못 먹는다.)
- 석상에 성근 낭 옥당에 싱경 커도 인정 몰른다.  
(석상에 심은 나무 옥당에 심어서 커도 인정 모른다.)

—隣保에 관한 속담—

- 증근 문에 통췌.  
(잠근 문에 통쇠.)
- 맹 지웃은 육춘까지 떠신다.  
(명주웃은 육촌까지 따습다.)
- 놈이 췌 들러귀는 건 보기 좃나.  
(남의 소 날뛰는 것은 구경하기 좋다.)
- 말이 고우민 2진 향 사레 가당 현 향 사온다.  
(말이 고우면 새 향아리 사러 갔다가 현 향아리 사서 온다.)
- 이녁 부물 위호젠 호민, 놈이 부물 위해사 혼다.  
(자기 부모를 위할려면, 남의 부모를 위해야 한다.)

—反目에 관한 속담—

- 시앗도 동세보단 낫다.  
(씨앗도 동서보다는 낫다.)
- 시앗 세에 곤말 웃나.  
(시앗 세에 고운말 없다.)
- 숭이 웃이민 메누리 다리가 허영.  
(흉이 없으면 머느리 다리가 희다.)

濟州島俗談의 主題

- 한 배엿 새끼도 아옹다옹 한다.  
(한 배의 새끼도 아옹다옹 한다.)
- 보리떡을 떡이엔 허멍 다심어멍을 어멍이엔 허랴.  
(보리떡을 떡이라고 하며 세모를 어머니라고 하랴.)

(4) 守分(22편)

인간생활에서 경계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기자신을 가늠하지 못하고 분수를 잃은 채 경거망동을 저지르는 일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주어진 여건에 대응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허황하게 일확천금을 노린대거나 부귀영화를 꿈꾸는 과욕은 화를 불러들이는 것임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射倖心에 끌려 분수에 어긋난 어리석은 행동을 범함으로써 만인의 지탄과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럴 때마다 그들 사례를 일상생활의 거울로 삼고 있으면서도 자기과시를 위한 공명심이 작용되어 엉뚱한 작태를 연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愚行은 실제로 가공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過慾·威勢·虛勢를 경계하여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처세의 해안을 열어 주고 있다.

<例示>

—過慾에 관한 속담—

- 사돈 노븐 거, 신칙이 높은 거.<sup>6)</sup>  
(사돈 높은 것, 신급 높은 것.)
- 정이서 죽썩던 솥 모관 와도 죽썩다.<sup>7)</sup>  
(정의서 죽썩던 솥 모관 와도 죽 썩다.)

6) 사돈은 서로가 엇비슷해야 부담이 없고, 신급은 높으면 불편하다. 이것은 곧 분수와 정도에 어긋난 욕심을 경계한 것이다.

7) '정이'는 南濟州郡의 동부지역을 旌義라 했는데 현재 表善面 城邑里가 중심지였고, '모관'은 北濟州郡 일대를 지칭했고, 그 중심지는 濟州市였다. 여기서 '정이'는 시골에 해당하고 '모관'은 도회지에 해당한다. 그러니, 시골서 죽썩던 솥이 도회지에 와서도 죽을 썩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耽羅文化 7

- 심은 꿩 놔 텡 늑는 꿩 심겐 혼다.  
(잡은 꿩 놓아 두고 나는 꿩 잡으려 한다.)
- 재작부리 지 가늑 모르멍 쫄레질 혼다.  
(재작부리 제 가늑 모르면서 싸움질 한다.)
- 벨 걸음 호당. 본 걸음 일른다.  
(벨 걸음 하다가, 본 걸음 잃는다.)

—威勢에 관한 속담—

- 갠 쉼 나무레곡, 쉼 겐 나무레곡.  
(개는 거를 나무라고, 거는 개를 나무라고.)
- 남자 드던 풀은 유울곡, 여자 드던 풀은 안 유운다.  
(남자 드던 풀은 이울고, 여자 드던 풀은 안 이운다.)
- 가냐귀 솟궤라 검서방이엔 혼다.  
(가마귀 솟더러 검서방이라 한다.)
- 썸어멍 솟덕에 아자도 호령혼다.  
(시어머니 부뚜막에 앉아도 호령한다.)
- 드라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혼다.  
(달아맨 돼지가 그시린 돼지 타령한다.)

—虛勢에 관한 속담—

- 가냐귀 까옥호민, 참새도 조조조.  
(가마귀 까옥하면, 참새도 조조조.)
- 칠산바당 조기 튀난, 제주바당 복쟁이 된다.)  
(칠산바다 조기 튀니, 제주바다 복어 된다.)
- 떡 진 사름 춤추난, 말뚱 진 사름 궤 혼다.  
(떡 진 사람 춤추니, 말뚱 진 사람 같이 춘다.)
- 술 한 잔 먹으면 웨조케 밧 사주켄 혼다.  
(술 한 잔 마시면 외조카 밧 사주겠다고 한다.)
- 여자 동산드레 돌아아장 오춤싸도 치매깍 짓는 줄 물론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앉아서 소피해도 치마자락 짓는 줄 모른다.)



## 2. 生計觀

생계관이라 함은 의식주생활을 전제로 하는 생계해결과 연관된 생활상이나 그에 대한 관념을 총괄한 명제이다. 일차적인 삶의 조건은 식생활의 해결되어야 했다. 序論에 밝힌 바와 같이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이 안겨준 온갖 노고는 사활이 걸린 극한상황 그대로였다. 역경을 딛고 억척같이 本島를 일궈온 선인들의 不敗之像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天災之禍인 三災(風·水·旱)와 겨루는 것도 역겨운데, 정치적 현실의 냉대 속에서 배고픔과 인간애의 목마름을 의연히 극복하고 三無(無大門·無盜賊·無乞人)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아무리 고파도 내일을 위해 절약하고 역경에 부딪쳐도 억척같이 일어나 구슬땀을 흘리면서 내일을 만들어내는 슬기와 솜씨를 익혔다. 낭비 없이 실속 있게 근실한 자세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엄청난 고충에 부대끼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최상의 호구지책이었다. 그것은 곧 본도속담의 갖는 생계관의 7가지 주제인 實利·儉約·勤實·自立·苦衷·強韌·告知에 그대로 접맥된다. 이들 주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속담학의 문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생활상과 향토문화의 형성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濟州精神(耽羅精神)으로 내세우고 있는 本島 고유의 향토정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큰 것이다.

### (1) 實利(84편)

俗談의 사상적 기반은 현실주의적 경향이 현저해서 實利主義와 안전주의가 압도적이라고 했다.<sup>8)</sup> 이 말은 속담의 기능이 실용적 가치관에 의한 효용성을 지적인 것으로서 實事求是인 현실치유의 民俗語로서의 본연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本島俗談에서 생계관과 관계된 7가지 주제 중에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實利인데, 206편의 생계 속담 가운데 85편으로 비중이 큰 것이다.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득실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득이 없

8) 徐石演, 前掲書, p. 432.

는 일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물소재에 대한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최우선 급무는 식생활 해결이었으므로 85편의 實利의 속담 중에서 28편이 먹는 것과 결부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실속을 차리기 위한 처세의 양상을 담은 57편이 결합되어 실리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 ① 주끄는 개 줄곡, 먹는 개 슬친다.  
(짓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찐다.)
- ② 왜조케 캐그니 마농밧디 검질매라.  
(외조카 사랑하느니 마늘밭에 김매라.)

①의 속담에서 개는 짓는 것이 본성이고 또 그래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제 소임에만 무작정 열중하다 보면 실속은 없고 여위게 마련이지만, 먹는 데 신경을 쓰는 개는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직분만 알고 실속을 못 차리면 궁색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또 ②의 속담인 경우는 외조카는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껴보았자 별로 이득이 없으므로 차라리 마늘밭에 김을 매는 것이 훨씬 소득이 있다는 처세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리의 속담들도 이기주의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생계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했다. 철두철미 실리실득을 위해서는 생활의 허점을 노출시킬 수 없다는 생존수단이었다.

〈例示〉

—虛勢에 관한 속담—

- 집 치레 말랑 밧 치레 허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 남서두린 불 솥곡, 들서두린 담 답나.  
(나무동치는 불 때고, 돌덩어리는 담 썬다.)
- 개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곡, 신날 끄너지카부뎨 피한다.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신날 꿇길까 보아서 피한다.)

濟州島俗談의 主題

○ 평빙애긴 나민 고망부터 좃나.

(평새끼는 나면 구멍부터 찾는다.)

○ 애비아덜이 몰 탕 가민 이녁 몰 메여 똥 아방 몰 멘다.

(애비와 아들이 말 타고 가면 자기 말 매어 두고 아버지의 말 멘다.)

—먹는 것에 관한 속담—

○ 일성은 아이 일, 먹성은 황밭갈래.

(일 솜씨는 아이 일, 먹성은 황소.)

○ 가시어멍 장 옷인 깁에, 사위 국 실픈 깁에.

(장모 장 없는 판에, 사위 국 삶은 판에.)

○ 여잔 오뉴월에 솔치곡, 남잔 구시월에 솔친다.<sup>9)</sup>

(여자는 오뉴월에 살찌고, 남자는 구시월에 살진다.)

○ 부지땡인 대여불기만 호곡 얻어먹진 못흔다.

(부지땡이는 데어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 못 먹나 못 먹나 호명 거죽까지 다 먹나.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껌질까지 다 먹는다.)

(2) 勤實(23편)

勤實은 勤勉과 誠實의 합성어이다. 근면성 없는 성실이 있을 수 없고 성실성 없는 근면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계를 위한 활동이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한 처세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非理이므로 철저히 배격했다. 인과응보적인 순리를 믿고 몸소 노력하고 관심을 쏟은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라 보고 불철주야 말은 바 생업에 신명을 다 쏟았다. 부지런한 공은 하늘도 못 막는다는 신념으로 밭일과 바닷일에 사활을 걸고 한 톨의 밥알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운 숨을 몰아 쉬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손이 늘면 입도 논다>고 해서 생산증대를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모자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마의 활용도 컸지만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심하면 해가 진 후 몇 십리 길을 걸어 일터에서 歸家한 다음 그제야

9) 오뉴월에는 개역(미릿가루)을 만들려고 보리를 볶으면서 자주 먹기 때문에 여자가 살찌고, 구시월에는 가을 곡식을 주어먹고 자란 영계를 잡아먹게 되므로 남자가 살이 찐다는 것이다.

저녁감을 마련하여 끼니를 때우고나면 子正이 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오직 부지런한 공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신조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男女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남자가 무색할 정도로 부녀자의 근실성은 세계적이었다. 그 중에는 알몸으로 바다에 자맥질하여 얻은 해산물을 생계에 보탬으로써 밭농사만으로 수급이 딸리는 식량난을 덜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의 생업속담 중 근실성의 반영은 필연적인 것이며 농업이 주생업인 일차산업이었던 만큼 이들 농사와 관계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는 근실을 고취하는 관념이거나 漁撈와 致富 등 부분적생업의 단면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예시는 근실이 생산적인 생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농업과 潛漁에 관계된 것 15편 중 여성의 근실성이 돋보이는 것들이다.

<例示>

- 홀아방은 쉬가 서 말, 홀어멍은 꺾가 서 말.  
(홀애비는 시캐가 서 말, 홀애미는 깨가 서 말.)
- 봄 해엔 애기 드랑 흐린조 혼 말 버신다.  
(봄 해에는 애기 데리고 찰조 한 말 번다.)
- 좀너 애긴 사올이민 꼴체에 녹저뿔 물에 든다.  
(해너 애기는 사홀이면 삼태기에 눕혀 두고 물에 든다.)
- 유월 마당질엔 애기 젓 맥이멍 숨 드리운다.  
(유월 타작질에는 애기 젓 먹이면서 숨 들이 쉰다.)
- 삼월 보름 물찌엔 하우장각씨 책갑 정 얼른다.<sup>10)</sup>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부인 책갑(冊匣) 지고 다닌다.

(3) 儉約(22편)

검약은 儉素와 節約의 합성어이다. 근실에서 근면과 성실의 관계처럼 검소와 절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고의 고충을 초극하면서 피와 땀의 결정으로 근근히 모아진 재물은 황금에 비할 바가 시니었다. 호사를 위한 낭비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지만 초가삼간에 하루 세 끼니를 사시사철 이어갈 수 있는

10) 일년 중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갈 때의 하나가 음력 삼월 보름날의 무수기이다. 이 때는 비록 선비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을 담기 위하여 책갑(冊匣)까지 걸머지고 드나들 정도로 여인네들이 근실했다.

### 濟州島俗談의 主題

밭마지기 두서너 개만 가져도 여간 만족한 생활기반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외양간이 있고 우마필이나 사육하면 그 마을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부자 축에 낄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은 富의 척도는 얼마의 농토에서 수확을 올리고 庫房을 채우느냐에 달렸었다. 그뿐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의생활에서도 무명옷에 미투리를 넘어 설 수가 없었다. 언제부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무명옷에 풋감물을 들인 本島固有의 갈옷<sup>11)</sup>의 등장은 농부들의 최상의 다목적 의복이었다. 타작질을 하거나 어쩌다 주변에 한두 방울 흩어져 있는 곡식알을 일일이 주어야 했고, 밭고랑에 흘린 밥알땀이 하나라도 주어먹지 않았다가는 죄를 짓는다고 호된 나무람을 받았다. 또 내년 봉사를 위해 씨앗 망태를 방안의 벽에 걸어놓고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넘보지 않았으므로 <씨 도둑은 없다>는 말까지 있고 보면, 대비를 위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은 참으로 놀라웠음을 알 수가 있다.

- ① 한 달에 개역 시 번 즈베기 시 번 호민 집안 망한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면 집안 망한다.)
- ② 바릇케긴 밥 도둑놈.  
(바닷고기는 밥 도둑놈.)
- ③ 보말도 켈기여.  
(고등도 고기이다.)

①의 속담은 간식용 음식인 미숫가루나 수제비를 한 달에 세 번 정도만 해서 먹어도 집안이 망한다고 보았다.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인 개역과 수제비 정도 해먹었기로서 집안 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끼니 이외로 사용되는 식량은 낭비로 보았던 것이다. ②의 속담은 밥에는 반찬이 따라야 하겠지만 생선 반찬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어버리게 된다. 평상시의 반찬은 푸성귀에 장국으로 족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굶주릴 때가 허다했다. <耽羅紀年>에 보면 英祖元年(1725)부터 51年(1775) 사이에 17번의 흉년이 들어서 진흉(賑恤)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sup>12)</sup> 평균 3년에 한 번 꼴로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11) 무명으로 만든 바지나 저고리에 풋감물을 묻치고 벌에 말린 다음 물에 담갔다가 다시 벌에 말리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그 빛이 갈색으로 변한다. 이것을 입고 일할 하면 땀과 때가 덜 묻고 질기므로 농부들이 즐겨 입는다.

12) 金錫翼, <耽羅紀年>,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p. 405~416.

비록 3년마다 한 번이지만 그 여과는 해마다 흉년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英祖 35년(1759) 牧使 許 麤는 그가 먹는 반찬으로 주려 주린 백성을 돌보았다고 했으니<sup>13)</sup> 당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생활정도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③의 속담에서도 식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바닷가에서 나는 고등도 고기 반찬이나 다름없는 귀한 음식이라고 함으로써 하잘 것 없는 식품이지만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검약의 속담 22편 모두 먹는 것인 식생활을 나타낸 것이어서 설움 중에는 배고픈 설움이 제일이라는 말을 되새겨 주고 있다.

〈例示〉

- 혼 놈 먹을 거 백 놈은 먹곡, 백 놈 먹을 거 혼 놈은 못 먹나.  
(한 놈 먹을 것 백 놈은 먹고, 백 놈 먹을 것 한 놈은 못 먹는다.)
- 췌기떡<sup>14)</sup> 혼 착 방 종달리<sup>15)</sup> 간다.  
(췌기떡 반 쪽 보고 종달리 간다.)
- 생이 혼 므리로 꼴막<sup>16)</sup> 상뒤 다 멕인다.  
(새 한마리로 꼴막 상뚝군 다 먹인다.)
- 동네집 식개 넘고나민 사을 불 안 습나  
(동네집 제사 넘고나면 사을 불 안 지핀다.)
- 조천관<sup>17)</sup> 만 가민 콩잎도 든다.  
(조천관만 가면 콩잎도 달다.)

(4) 苦衷(24편)

苦樂은 상대적이므로 환경여건이나 심적 갈등의 진폭에 따라 그 강도를 의식

13) 金錫翼, 前掲書, p. 413.

“英祖三十五年 牧使許麤 備供膳贈 賑飢民.”

14) 보리와 밀의 겨나 그 가루의 하등품을 탁주 찌거기와 섞어서 주물러 만든 떡.

15) 〈註·2〉 참조.

16)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의 속칭.

17) 北濟州郡 朝天邑 朝天里, 옛날에는 濟州市에서 한나절 가까이 걸어야 도착하는 곳이었다.

### 濟州島俗談의 主題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實利·勤實·儉約에 얽힌 本島先人の 생활상을 한마디로 ‘苦衷’ 그대로였다. 自活의 터전을 다지는 개척의 고충도 컸지만, 賦役과 貢賦의 시달림은 한과 저주를 낳았고 成年者가 되는 것도 두려웠다. 다음과 같은 古記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耽羅紀年〉 첫째 권에 보면 고려 文宗 12년(1058) 가을 왕이 탐라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배를 만들어 宋나라와 통하러 함에 內史 門下省이 진언하기를

“탐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本道를 이용하여 생활을 도모하는데, 지난해 가을에 재목을 벌채하여 바다를 건너 새로 佛寺를 창건하느라고 이미 노고와 폐가 많은데, 지금 또 괴로움을 더하면 다른 변이 생기기까 두렵습니다.”<sup>18)</sup>

#### 또 濟州島察訪 金爲民의 狀啓에

“이 땅은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守令이 기강은 허물어지고 土豪마저 양민을 멋대로 강점하여 奉命이라 일컫고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므로 양민의 자식은 8, 9세가 되면 이미 빼앗긴 바가 되니 부모는 자식이라 할 수 없었다.”<sup>19)</sup>

위 기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달리는 생활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위해 육신을 불태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순탄치 못해 반목질사와 비정한 사태를 낳기도 했다.

- ① 여자로 나느니 췌로 나주.  
(여자로 낳을 바에 소로 낳지.)
- ② 비 온 날 왜상제.  
(비 온 날 외상제.)

18) 金錫翼, 前掲書, p. 350.

“毛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砌佛寺 勞弊已多今又重困 恐生他變 王從之遂寢”

19) 《世宗實錄》, 卷三十六 九年 六月條.

“……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古良民稱爲奉足 使之如奴隸 故良民之子 年纔八九 已爲所占 而父不得爲之子”

①의 속담과 같이 여자라고 해서 집안에 안주하면서 남정배의 내조자로 있기에는 너무나 호사스럽고 분에 넘친 생활이었다. 그러니 어린애를 돌보면서도 집 안팎의 일을 소처럼 감당해 냈어야 하니, 그 고충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곧 여인의 항변으로서의 저주와 자학의 한을 토로해 낸 것이다. ②는 三年喪을 치뤄야 하는 외상제의 고독과 고충을 드러냈다. 날씨가 맑아도 혼자서 부담이 많은데, 비가 내리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 독자의 괴로움을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독자의 고충도 있는 반면 너무 자식이 많아도 괴로웠으니, <애기 많은 저지, 말(馬) 많은 부자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고충은 자아발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생활자체의 곤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例示>

—經濟的인 苦衷—

- 서도 걱정, 웃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 노리케기 혼 점 먹센 후당 지 케기 열 점 일룬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일 점 잃는다.)
- 준 쉼 꼬리 꿔다.<sup>20)</sup>  
(마른 소 파리 꿔는다.)
- 선 술 할망 배 분다.<sup>21)</sup>  
(선 술 할머니 배 분다.)
- 놈이 집광 관상살인 췌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인 췌던 밥도 두고 간다.)

—對人關係의 苦衷—

- 살췌보리 거죽채 먹어도 씨앗이랑 상대 말라.  
(꺼끄라깃보리 껍질 채 먹어도 씨앗은 상대 말라.)

20) 마른 소가 유난히 파리가 들끓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곧 궁한 처지에 있을 때 걱정거리와 부담되는 일이 많아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비유한다.

21) 주모는 술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자주 맛을 봐야 하는데, 덜 익은 술은 헛배만 부르게 만든다. 그만큼 돈을 벌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풍유하고 있다.



濟州島俗談의 主題

- 여잔 남자 잘못 만나면 죽 삼시 매 삼시.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죽 세 끼니 매 세 끼니.)
- 잘 ㅎ여도 혼 구승, 못 ㅎ여도 혼 구승.  
(잘해도 한 가지 흥, 못해도 한 가지 흥.)
- 질이 웃이난 혼길을 걷꼭, 물이 웃이난 혼 물을 먹나.  
(길이 없으니 한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 한물을 먹는다.)
- 어린 각씨 달래퀸 ㅎ민 두리중치에 사슬돈 담앙 생글생글 흔들멍 달랜다.  
(어린 아내 달래려면 주머니에 동전 담고 생글생글 흔들면서 달랜다.)

(5) 自立(14편)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력 가운데 선행조건의 하나가 自立의 의지와 그 실천이다.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이상,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계의 한계를 깨고, 자식이 적령이 되어 혼인을 시키고 나면 따로 살림을 냈다. 철저히 자립생활의 생활방식을 습관화시켰다. 오늘날 새 살림을 마련하는 자녀들에게 고급아파트와 생활용구를 제공하는 과잉보호현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물론 당시와는 비교할 바 못 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本島先人들은 설령 그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생활의 필수품인 솔·그릇·숫갈·항아리 정도가 생활밀착으로 건네준 재산목록이다. 거기에 발마지기과 우마필이 언치면 대유산의 복록을 타고난 것으로 여겼다. 그 후에 생활형편이 퍼지고 주그러드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달렸으므로 자립에 의한 자수성가의 생계관을 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통적 생계의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7·8旬이 넘는 노인들도 舉動不能이 아닌 한 독립생활을 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의존하여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 강이 보말도 집은 짓나.  
(계와 고동도 집은 있다.)
- 집 진 놘이 광<sup>22)</sup>을 좇주.  
(집 진 놘이 광을 찾는다.)

22)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때 대가 되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놓은 것.

이 두 속담만 놓고 보더라도 바다에 사는 게와 고둥도 다 제 각각 살집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집이 없을까 自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명을 띠고 있으면 그 소임을 맡고 있는 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자율적인 자립의식도 고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활기반과 여건이 처음부터 갖춰진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급자족으로 윤택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욕망이 자립의 속담을 형성하고 있다.

〈例示〉

- 나 것 웃언 놈이 거 먹젠 호민 말이 한다.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려면 말이 많다.)
- 누운 남에 으름 안 온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웃인 활렵광 이신 조그람은 맛사지 못근다.  
(없는 활달과 있는 응졸은 맛서지 못한다.)
- 나드는 개가 썩을 문다.  
(드나드는 개가 썩을 문다.)
- 삼월 보름 물찌에 도독질 생각나민 집이 든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 도독질 생각나민 집에 든다.)

(6) 强韌(12편)

강인은 실리·근실·검약·고충·자립등을 응집시킨 本島先人の 기질의 총화라고 볼 수 있다. 本島精神의 기저를 근면·검소·자립·강인[不敗]으로 잡고 있듯이,<sup>23)</sup> 그 가운데서도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꾀꿉이 생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저력의 원천을 강인성에 있었다고 본다. 만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강인성이며 좌절하지 않고 억척같이 생의 심지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인성이었다. 바늘 끝으로 찢려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야무진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파를 헤쳐 나올 수가 있었다.

23) 玄平孝의, “耽羅精神探究”, 《濟州大學論文集》, 第11輯, 1980, pp. 23~48.

濟州島俗談의 主題

- 제물에 준 놈 거시기 말라.  
(제물에 마른 놈 건드리지 말라.)
- 먹돌도 딸람시민 고망 난다.  
(차돌도 뚫고 있노라면 구멍 난다.)

얼핏 보기에는 말라빠져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氣力은 우람한 체력이 못 당할 끈기와 강박함이 다져져 있어, 감히 깔보았다가는 봉변당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결심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진 집념을 갖고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력은 놀라운 것이다. 근실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인들에게서 드러난 강인한 생활력도 다른 고장의 여인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것이 되고 있다.

〈例示〉

- 장항광 어린아인 실려야 좃나.  
(장독과 어린애는 실려야 좋다.)
- 물 아래 삼년, 물 위이 삼년.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 놈이 보정아지민 애기 나지 말앙 일해사 혼다.  
(남의 보증없으면 애기 낳지 말고 일해야 한다.)
- 줌년 애기 나뿔 사을이민 물에 든다.  
(해너는 애기 낳고 사흘이면 물에 든다.)
- 봄잠은 가시자월에 걸어져도 잔다.  
(봄잠은 가시덤불에 누어도 잔다.)

(7) 告知(23년)

고지는 생계관의 속담 중 위에 열거한 6가지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23편의 속담을 통합한 것으로 생계에 관한 俗談과 사례를 提報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 귀숨이 9마사 시절 좃나  
(섬계가 여물어야 시절 좋다.)

- 밥도 쉬면 못 먹나.  
(밥도 쉬면 못 먹는다.)

바닷속 돌 틈에 서식하는 棘皮動物인 섬게류는 그 속이 누렇게 여물이 짝 차 있어야 그 해에 꼭식도 여물어서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 이것은 다분히 俗信性을 띠고 있는 俗說인 동시에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農事豫報인 것이다. 또 아무리 귀중한 밥이지만 상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근한 상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범한 사례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스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계에 대한 사례와 속설을 매개로 하여 상식과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삶의 슬기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例示〉

- 서물<sup>24)</sup> 날은 물 알로도 브름 분다.  
(서물 날은 물 아래로도 바람 분다.)
- 브쟁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 관덕칭 사탕국(설롱탕)도 먹어난 놈이 먹나.  
(관덕칭 설탕국(설렁탕)도 먹어난 놈이 먹나.)
- 병이 도둑.  
(病이 도둑.)
- 것 먹을 땐 개도 안 다들린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쫓는다.)

### 3. 運命觀

인간의 운명은 타고 날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보고 그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은 萬古의 천리로 여겼던 古來의 운명관을 그대로 지켰다. 운명에 항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요, 길흉화복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인 天賦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잘되면 내 운이 닿은 것으로 보았고 못되면 내 운이

24) 음력 매월 12일과 27일째의 무수기

### 濟州島俗談의 主題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보니,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자기 운명을 탓하는 자위의 수단도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내 운명은 내가 만들고 개척한다는 도전적 자세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자로서의 實存을 의식한다는 것은 초인적 사고에 해당했다. 흥망성쇠를 順天者는 흥하고 逆天者는 망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붙들어 매고 자기가 할 도리를 묵묵히 다하는 것만이 만사형통의 비결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因緣이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因果觀과 來世에 대한 일말의 불안과 呪願도 있었고 보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死後의 관심도 눈에 띈다. 그렇다고 이들 운명관에 관한 속담들이 경세관이나 생계관에서 보여줬던 절박감에는 못 미쳤고, 지극히 원초적인 教條主義의 性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압축시키면 運數와 來世로 줄일 수도 있지만 점토의 구체성을 위해 運數·吉凶·因緣·來世 등 4부분으로 구분했다.

#### (1) 運數(12권)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과 氣數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운수이다. 그날 운수가 나쁘면 누웠어도 코가 깨진다고 했듯이 운수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명에로 생각했고 정해진 四柱八字로 인식했다.

- 정의서 죽쭈던 솥 모란 와도 죽쭈다.  
(정의서 죽쭈던 솥 모란 와도 죽쭈다.)
- 팔자가 굷이민 식전에 씨어멍이 아흔아홉.  
(팔자가 굷으면 식전에 시어머니가 아흔아홉.)

앞의 <註 7>를 통해 풀이된 바 있지만, 외곽지에서 죽을 쭈던 솥이 官中으로 옮겨진다고 그 죽쭈던 역할을 모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을 바꾼다고 한평생 주어진 직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다. 또 팔자가 사납고 운수가 기박하면 아침 식전에 짓궂은 시어머니가 하나도 아닌 아흔아홉이나 된다고 과장시킴으로써 운수의 무상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운수가 좋으면 저절로 橫財數의 이변도 있었다.

- 먹곡 쓰렌 흥민 가지냥에 모람 온다.  
(먹고 쓰라고 하면 가지나무에 모람 연다.)

여기서 ‘먹고 쓰런 𪛗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의 모티브를 일컬음이고, ‘가지냥’은 운수의 주체인 인간이며 ‘모람 온다’는 이변적 횡재의 天惠를 뜻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각기 제나름의 운수를 타고 나게 마련이므로 天不生無祿之人の 의미를 되뇌이게 했다.

〈例示〉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즈드는 사람은 산지물<sup>25)</sup>에 가도 궁근광<sup>26)</sup>에 안나.  
(걱정하는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들거리는 팡에 앉는다.)
- 버들 장신 버들 물영 죽나.  
(버들 장수는 버들 물고 죽는다.)
- ㄹ서른에 ㄹ든 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던 밥도 씹어달렌 양얼 혼다.  
(갓설흔에 여든 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번 물던 밥도 씹어달라고 양탈한다.)
- 지서어멍광 오름엿 돌은 궁글당도 사름에 난다.  
(본처와 산겻 돌은 굴르다가도 살도리가 있다.)

(2)吉凶(10편)

길흉은 운수에 직결되면서도 운명예의 귀의가 아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길흉의 징후를 말하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幸과 不幸, 福과 禍는 天來의 것만 아니라 인위적인 作爲性도 개재되고 있다.

- 집안 망호젠 𪛗민 서당공중이 난다.  
(집안 망하러던 무당이 난다.)
- 즈들 일 웃이난 눈 개 발 밟나.  
(걱정할 일 없으니 누운 개 발 밟는다.)

이들 속담에서 전자는 무당의 출현에 따른 가운을 말함인데, 무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이 지펴야 한다. 그와 같은 奇人이 배출된다는 것은 한 가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禍根인 동시에 凶兆인 것이다. 왜냐하면,

25) 濟州市 健入洞에 있는 샘(泉).

26) 〈註·22〉 참조.

濟州島俗談의 主題

무당집은 종말이 좋지 않았던 先例와 俗信的 觀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인 경우는 의도적으로 누운 개의 발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밟힘을 당한 개의 입장에서 자기방어의 본능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물 수밖에 없다. 안 끌어 들여도 될 화를 인위적으로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吉凶의 속담들은 대부분이 吉보다 凶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은 韓本土의 속담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다.<sup>27)</sup>

〈例示〉

- 게와시 떡 쳐 먹젠 ㅎ난 시리가 벌러진다.  
(거지 떡 찌 먹으려 하니 시루가 깨진다.)
- 빈복흔 놈 나시 독새기 속엔 배들엉 못 먹나.  
(빈복한 놈 몫의 달걀 속에는 뼈가 들어서 못 먹는다.)
- 집안에 송사 들러면 뜯은 닭이 꼬끼요 ㅎ곡, 기시린 듯이 드름을 든나.  
(집안에 흉사 들려면 뜯은 닭이 꼬끼요 하고, 그시린 돼지가 땀박질 한다.)
-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옷나.  
(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코 좋은 거지는 없다.)
- 나치 꽃인 애기 킵기도 어렵나.  
(날기 꽃은 애기 키우기도 어렵다.)

(3) 因緣(9편)

운명에는 인과응보의 機緣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 인연을 생활에 결부시켰는데, 生滅과 운행의 순리로 받아들였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聚散과 적응의 한계성을 보여주면서도 극복의 방편으로 導用할 줄 알았다.

- 뭉땃물에 손 덴 배누리.  
(두붓물에 손 덴 머누리.)

27) 金善豐, 《韓國民俗大觀6》,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7, p. 591.

“眞·善·美의 소재보다는 사악한 소재, 吉보다는 凶을 들어 표출함으로써 표현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거기에다가 남을 비틀어 주고 헐뜯고서야 만족해하는 조선조 속담은 객관적 사항을 달리하는 현대에 와서는 빛이 흐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 싸는 물 시민 드는 물 씻나  
(쌀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다.)

여기서 두붓물에 손을 댄 며느리는 事緣型의 속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부모와 굳게 맺어진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며느리를 맞기 위해서 두부를 만들다가 댄 손은 그 며느리를 맞는 인연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그 며느리는 평생 그 가문에 떼땀한 식구로서의 우대받는 응보의 실체로 그 지위가 공공했다. 또 자연현상의 하나인 쌀물은 반드시 밀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생활에서도 길흉이 교체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인과응보의 機緣을 중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例示〉

- 길엿 돌도 연분이 서사 찬다.  
(길엿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조는 집에 자는 메누리 온다.  
(조는 집에 자는 며느리 온다.)
- 제주산은 악산이란 악한 사람 잘 된다.  
(제주산은 악산이니 악한 사람 잘 된다.)
- 서방 못 들령 울곡, 각세 못 들령 울곡.  
(남편 못 만나서 울고, 아내 못 만나서 울고.)
- 망홀 놈 나민, 흥홀 놈 난다.  
(망할 놈 나면, 흥할 놈 난다.)

(4) 來世(5편)

한국속담에는 現世主義的 사상만 있을 뿐 내세관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했다.<sup>28)</sup> 그것은 기존 속담집에 의한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내려진 단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本島의 속담에는 인과응보적 업고를 드러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亡人의 명복을 위해서 致誠을 드리고 축원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俗信的 來世觀도 있기 때문이다.

28) 金道煥, "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연구". 《師大論文集》, 제2집, 부산사범대학, 1975.



濟州島俗談의 主題

만약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신앙과의 관련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유교와 불교·도교·무속 등이 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굳이 단안을 내린다면 韓本土의 속담을 汎神論的 무속사상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처럼<sup>29)</sup>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염라대왕의 사후단판을 받는 불교적 성향이 짙다고 하겠다.

- 죽은 사람 길 쳐사 존 고단 간다.  
(죽은 사람 길 닦아야 좋은 곳 간다.)

俗信型的 속담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사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귀가 후 무속신앙의 일환으로 민간의식인 귀양푼이를 하고 亡人의 명복을 기원하는 풍습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내세관의 대부분이 生時에 비행을 저질렀을 때 사후의 업보가 더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例示>

- 산 때 안 문 빗 죽엄 가도 물어사 혼다.  
(살았을 때 안 문 빗 죽어서 가더라도 알아야 한다.)
- 노 씻을 때 물 하염 쓰민 저승 강 다 먹어사 혼다.  
(낮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저승 가서 다 먹어야 한다.)
- 먹는 물에 돌 대끼민 저승 가민 눈썹으로 다 건져사 혼다.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 가면 눈썹으로 다 건져야 한다.)
- 돼 속영 풀앗당 저승 가민 대코쟁이로 눈 썰렁 췌다.  
(돼 속여서 팔았다가 저승 가면 대코쟁이로 눈 썰려서 췌다.)

29) 金善豐, 前掲書, pp. 592~593.

### Ⅲ. 맺 음 말

이상에서 주제분류의 기준으로 警世觀·生計觀·運命觀을 類概念으로 하는 上位目을 설정한 다음, 그에 부속시킬 수 있는 種概念인 下位目 15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警世觀에서 敎示·言行·人情·守分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非理와 非行 인간성 상실을 경계하여 인간본연의 자세와 公衆性을 강조하고 있다. 生計觀에서는 實利·勤實·儉約·苦衷·自立·強嫗·告知를 주축으로 생계해결인 糊口之策에 직결되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우한 환경을 초극하는 생활철학이자 신조로서 오늘날 본도에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통의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運命觀인 경우는 運數·吉凶·因緣·來世로 분류되는데, 順天者興하고 逆天者亡이라는 것을 천리로 알고 초인적인 천운과 氣數만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속명론을 따르고 있다. 단, 여기서 팔목할 만한 것은 來世인데, 한국속담에는 현세주의적 사상만 있을 뿐 來世觀인 반영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도의 속담에는 그와 정반대로 내세관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기존연구결과는 속담 사전에 의한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결과는 재수정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